

#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브랜드로 거듭

## 예담채, 3년 연속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전북도 원예농산물 광역브랜드 '예담채'가 18일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전북농협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발한 '예담채'는 도내 13개 시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지역농협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라북도 대표 브랜드로서 전북농협의 지속적인 브랜드 홍보·관리 및 품질 관리를 통해 고품질 안전 전북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예담채는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 장관상을 3년 연속(2014년~2016년),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2015년~2017년) 수상한 것과 더불어 금차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도 3년 연속 수상하여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농산물 광역브랜드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08년 브랜드 출시 이후 2009년 33억원, 2012년 165억원, 2017년 1,100억원, 2018년 1,23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농

협은 브랜드 초기부터(2009년~2011년) 3년간 철저한 농가 조직화 교육 및 브랜드 관리 교육 등을 농가 맞춤형으로 실시하여 체계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전북농협은 예담채 농산물의 판매확대를 위해 2016년부터 매일 수도권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창동점·성남점 등과 광주·전남 및 제주도 하나로마트 뿐 아니라 매년 이마트 전국 매장에서 통합관측행사를 개최하는 등 전국적으로 전북농산물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예담채 브랜드가 전국 대표 광역브랜드로 발돋움함에 따라 출하 농업인들이 전북을 대표한다는 큰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예담채 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제고로 농가 수취가 향상에도 기여하여 전북 농업인의 농가 소득 상승에도 일조한 것이 예담채가 짧은 기간에 전국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원동력이다.

또한, 소비자 선호도 및 만족도에서 전국 1위 브랜드로 등극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산지 생산 농가의 조직화 및 물량의 규모화를 기반으로 지역 및 품



전북도 원예농산물 광역브랜드 '예담채'가 18일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목 단위 통합마케팅으로 시장교섭력을 제고하여 산지 및 소비시장의 수급 가격조절 기능으로 도내 원예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전북농협 유재도 본부장은 "예담채는 생산에서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성을 담보하여 소비자들에게 선택 받는 브랜드로 정착시켜 소비자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협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고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농협은 올해도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홀로 햇사과, 캄벨 포도, 신고 배, 등 과일과 고구마, 양파 등의 과채류 품목에 대해 전라북도 농산물 특별관매전을 개최하고, 추석 명절을 대비해 제주 품목인 과일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예담채 사과·배 혼합 선물세트를 공급하여 맛과 멋의 예찬인 전라북도를 느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출범 기념 국제학술토론회 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서울 aT센터(양재동 소재)에서 국내·외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여성정책팀 출범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토론회를 진행했다.

국제학술토론회는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과 관련된 해외사례와 '국내 여성농업인의 삶과 나아갈 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방향을 조명해 보

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의 베티나 북 교수는 '유럽의 여성농업인'이란 주제로 유럽 농업에서의 여성의 지위, EU 정책 등을 소개하면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일본 교토대학의 시미즈나츠코 부교수는 '일본의 여성농업인 역량증진을 위한 정책'을 주제로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여건에서 여성농업인 영

농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족경영, 영협정, 여성 농업프로젝트 등 현장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젠더 앤 공동체 오미란 대표는 '여성농업인의 삶과 농정방향' 주제로 농식품부의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16~2020)을 평가하면서 농업, 농촌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여성농업인의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종합토론회에서는 여성농업인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여성

농업인 지위 향상, 행복한 농촌 조성을 위한 여성 정책제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오병석 농식품부 차관보는 "농촌여성정책팀 출범과 함께 여성농업인 해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기관, 전문가 등이 다양한 시각으로 논의할 수 있었던 토론회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을 밑거름 삼아 우리 농업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이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되길"

### JB금융그룹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 국가보훈처장 감사패 수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8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임용택 은행장이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김석기)으로부터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처장 감사패를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 김성철 부행장, 전북동부보훈지청

김석기 지청장, 조진희 복지팀장 등이 참석했다.

임용택 은행장은 그동안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국가유공자 중 고령의 독거노인과 저소득 유가족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보훈가족 후원물품 전달,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 등의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을 펼쳐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에 앞장섰다.

특히, 전북동부보훈지청에서 매년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우선적으로 추천받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후원 물품과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라며,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하며 100년은 행으로 성장해 나가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농진청, 태풍 피해 최소화 위한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제5호 태풍 '다니스(DANAS)'가 북상함에 따라 직·간접 영향권에 속한 지역의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전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

'사전 현장기술지원단'은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전문가 27명으로 구성, 9개반으로 나눠 각 지역에 파견된다.

폭우와 강풍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 고추·참깨·콩 등 주요 발작물, 벼, 농업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과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관리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한편,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둘러

물길(배수로)정비와 노후 시설물을 보강해야 한다. 벼는 물꼬와 논두렁을 점검하고, 발작물은 쓰러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주시설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 과수는 나무가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지주와 받침대를 보강하고, 가지를 유인해 고정해야 한다. 비닐하우스와 같은 농업시설물은 비닐 점검과 신속한 보수를 실시하고,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기초강화를 위한 보조지지대를 보강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준용 과장은 "제 5호 태풍 '다니스'의 이동경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직접 영향권에 든 지역 외에도 태풍 피해예발을 위한 사전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이 최근 남원서부청에서 3개 도(전남·전북·경남) 산림부서장과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서부지방산림청, 3개 도 부서장 간담회 개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옥)은 최근 남원서부청에서 3개 도(전남·전북·경남) 산림부서장과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산림사업 분야의 현안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을 통한 협력으로 주요 산림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여름철 산림재해 예방, 지역별 특색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황인옥 서부청장은 "산림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해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기자

## 농식품부·aT,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추가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직거래 판로 확대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대상자를 이달 26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직거래장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는 정기적으로 고정된 장소에서 개설하는 '정례 직거래장터'와 명절·김장철 등을 대비하여 연속 3일 이상 개설하는 '테마형 직

거래장터' 중 해당하는 유형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거래장터 사업자로 선정되면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및 장치 설치비용, 홍보·마케팅 및 교육·교류비를 최대 5천만원까지(보조율 70%) 지원받을 수 있다.

aT는 올해 상반기 1차 모집에서 직거래장터 사업자 총 46개소를 선정하여 지원 중이며, 이번 하반기 추가 모집에서는 15개소 내외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